

“정읍 역사와 문화 담긴 유물 삽니다”

시립박물관 공개 구입 나서

3월7~11일...시·글·그림 중심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유물 삽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이다.

단,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박물관은 지난해 공개 구입을 통해 몽연 김진민, 창암 이삼만, 토립 김종현 등 정읍 역사인물의 글과 그림, 보첩교 자료, 태인방각본 등 국보급 역사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

올해는 수집 대상을 정읍의 시(詩)·글(書)·그림(畵)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몽연 김진민과 동초 김석근, 창암 이삼만, 석지 채용신 등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들의 작품이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3월7일부터 3월11



정읍시립박물관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정읍시립박물관 전경. <정읍시 제공>

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련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올 ‘깨끗한 축산농장’ 50곳 신규 지정한다

희망 농가 연중 사업신청서 제출

남원시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이다.

지정 희망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연중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립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시와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총 105개소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깨끗한 축사.

(한·육우 38, 낙농 2, 양돈 8, 양계 57)가 지정되었으며 매년 이를 확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50곳 신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에 대하여 축산분야 보조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정기간은 2년으로 인증 농산물은 생산·유통 단계부터 연 2회 이상 농작물과 토양 시료를 수거 분석해 안전성을 관리한다.

김선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시 지역 농민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군산시가 농산물을 재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한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 관리 체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5단계(PLS,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 해당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익산시, 2026년 인구 30만명 회복 박차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 사업

익산시가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2026년 인구 30만명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해결, 출산보육, 문화환경 등 4대 분야 사업 추진에 주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회복을 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 다이얼 1억 패키지를 통해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원 상당의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익산형 기본주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공원과 도서관, 박물관 등 총 100개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중년을 위한 연·어프로젝트 강화와 노년층을 위한 마을자치연계제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익산형 인구정책으로 시민들의 행복이 플러스 되어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다이얼을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jyy@kwangju.co.kr

순창읍 창림문화누리마을 입주자 모집

음식점·방앗간·공예방 등 제공

3월2일~4일 신청...청년 우대

순창군이 순창읍 창림마을에 있는 ‘창림문화누리마을’에서 먹거리 체험시설 등을 운영할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목표로 문화,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에게 음식점, 방앗간, 공예방 등 6개소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신청한 사업 또는 각종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군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주대상은 순창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생활예술, 문화체험, 먹거리 등의 분야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만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선정 때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순창읍에 있는 창림문화누리마을.

농촌개발과 도시재생계(063-650-176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10일 선정한다.

도광택 순창군 농촌개발과장은 “창림문화누리마을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활력을 되찾고 지역 활성화나 청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예비 입주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한옥 등 옛 시설을 고쳐 창림문화누리마을을 조성했다.

/순창=정영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상습 결빙구간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

청룡길·동산길 등 3곳 6월까지

고창군이 겨울철 결빙구간 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급경사 도로에 도로열선을 설치한다.

아스팔트 도로면 아래에 설치되는 도로열선은 표면에 있는 감지 센서를 통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 열을 가해 눈을 녹이는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이다.

폭설 시 즉시 눈을 녹여 선제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해지며,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설방식이다.

설치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인 고창읍 청

룡길(문화체육관~유진청아파트) 200m, 동산길(성산아파트 진입로) 100m, 남정2길(연흥세탁소~셋별유치원) 100m 총 3개소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도로열선설치 사업비로 확보했다.

김완철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겨울철 폭설 시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에 힘을 실어 교통 정체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